

THE

Holistic health



2월호

3월호

눈물은

공공 얼어서 굳어있던 내가
녹아서 풀리는 것
녹아서 풀려서 흐르는 나

움켜쥔 돌맹이
내려놓으라고 하네
손에 쥔 지푸라기
바람에게 주어버리라고
찌든 누더기 벗어 던지라고
타이르며 달래며 흐르는 눈물

풀려난 나를 다시
가야 할 곳으로 흐르게 하는 눈물은
따뜻한 강

추운 내 영혼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며, 눈물의 강이며
용서와 화해와 평화
부활의 바다, 오, 꿈의 바다로
나를 데려가 다오

* 눈물 : <2010 국제시치료워크숍>낭송 작품

* 권이영 시인

- 월간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 시집<천천히 걷는 자유>
- 한국시인협회 교류위원장

3 권두언 박재형

전인건강학회의 비전과 할일

5 몸건강 민 순

독감과 감기의 원인균이 달라

생활습관으로 감기예방을!

7 마음(영혼)건강 구교성

나는 바보입니다

10 마음(영혼)건강 Rata, Cristian G.

The Boundaries of Love

15 전인건강뿌리 조무성

21세기 바보론 : 살름일꾼 찾기

17 고문소개 김상복, 김영준

18 학회공지 회원동정

19 동역단체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전인건강학회의 비전과 할 일

권두언



박재형

서울대학교병원영상의학과교수
전인건강학회 공동회장
대길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의료선교협회 회장

전인건강학회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학회라 함은 한 분야의 학문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모여서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분야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협의의 정의가 있고 광의의 정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분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분야를 가급적 정확하게 경계 짓도록 노력을 한다.

전인건강학회는 전술한 일반적인 학술단체로서의 학회의 정의와는 상당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학회의 이름 자체가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전인건강이라 함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사회와 환경을 아우르는 것이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과 영혼도 병들과 사회와 환경도 병들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건강한 몸을 위하여 의학이 있다면 마음에 대하여는 심리학을 비롯한 인문과학이 있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는 신학과 철학이 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는 정치와 역사와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있다. 건강한 환경은 어떤가. 이를 위한 분야는 도시환경, 생태계의 환경, 나아가서는 지구온난화와 우주 환경까지를 말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분야를 경계 지을 수 있는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학문이

전인건강학이다. 인간과 우주를 함께 논하며 미생물학에서 신학에 이르기까지 현미경에서 망원경을 모두 사용하는 분야가 된다. 전인건강의 모든 분야는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음을 알 수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분야를 벗어나면 한계를 느낀다. 그 점이 현대과학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단점은 주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장점은 깊이 있는 연구로서 해당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에 다학제 연구가 많이 권장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학문의 경계선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이러한 협력 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가 형성되기도 하고 고유의 학문 영역이 넓혀지기도 한다. 전인건강학회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신의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있는 주변 영역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한 분야씩 점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의학분야 내부에서만 하더라도 임상각과와 기초학문 각 분야가 서로 협력하는 분야간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관에 관한 학회처럼 전인건강학회도 이러한 분야간의 특이성을 어떻게 연결하여 다학제간 연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방법론적인 연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영혼건강을 중심으로 육체의 건강, 사회의 건강을 바라보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는 연구는 대체의학에 대한 의학적 연구나 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비과학적인 연구들은 전인건강학회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의학계에 불고 있는 Evidence based medicine과도 상충이 되지만 자칫하면 비과학적인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인건강학회의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목표에 대하여 더 분명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만 전인건강학회의 올바른 비전과 할 일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독감과 감기의 원인균이 달라

생활습관으로 감기예방을!

민 순

조선간호대학 교수

전인건강학회 이사

요즘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쉽다. 그래서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인플루엔자와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 흔히 인플루엔자(계절독감)는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독감과 일반적인 감기는 다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Influenza virus)로 Flu라는 말 자체가 Influenza에서 온 말인 만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병이 인플루엔자인 것이다. 독감은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독감(毒感)과 감기(感氣)라는 이름도 그런 생각을 많이 부추기겠지만, 영어의 경우는 감기는 'Common Cold', 독감은 'Flu'로 구분을 하는 만큼(이름상으로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독감과 감기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독감 예방에 있어 첫걸음이다.

독감과 감기를 나누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원인이다. **독감**의 원인은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의해 감염된다. 이 바이러스는 A·B·C형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 A와 B가 여러 변종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이다. 최근 유명해진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하위 변종에 속한다. 새로운 형이 나타나면 그 이전의 예방 백신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유행 때마다 그 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미생물학적인 흥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방위생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기**는 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빈도수로 적어보자면 라이노 바이러스(Rhinovirus),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 콕사키 바이러스(Coxsackievirus), 에코 바이러스(Echovirus)와 그들의 변종이 약 50% 정도의 감기를 일으킨다. 나머지 50% 정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직 다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200여 가지에 이른다. 감기는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일단의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의 통칭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른 병이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하면 감기가 아니고 독감만 60~90퍼센트 정도 예방될 뿐이다. 이런 이유로 감기에 '면역'이 생기지 않으며 백신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발현양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등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독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발병하는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과 두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급격하게 발병한다. 이런 증상은 1주일 이상 지속된다. 특히 소아, 고령자,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병 환자 등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 한번 유행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주변에 전파된다. 겨울에 독감에 잘 걸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습도 및 온도를 겨울 날씨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양식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감염성 물질에 오염된 피부나 환경 물체에 접촉하는 것, 독감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오는 분비물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이 상호 혼합되면 전파력은 더욱 강해진다.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수칙은 첫째, 손을 잘 씻어야 한다. 특히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 손, 발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둘째, 독감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꼭 가야 할 경우라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로 매년마다 유행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매년 새로 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과로를 피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 따뜻한 차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독감예방에 도움을 준다. 필요하다면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실내온도를 18-20℃로 맞추고, 45-5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바보입니다.

1. 아내가 나에게 바보라고 합니다.

“당신은 바보! 이 바보야! 바보, 바보”, 라고 하는 아내의 조크(joke)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직업은 목회자(목사)이며, 사회복지사입니다. 나는 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생활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 나이 30살 총각전도사 때에 노회의 장로님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년 때에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의 결혼관을 4가지 철학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중매결혼을 한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보수 성향을 가진 시골정서는 연애결혼은 어딘가 모르게 바르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청년인 나는 그리고 전도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한다. 셋째는 목사님의 주례로 축복을 받는다. 넷째는 결혼 전에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위의 네 가지는 나와서 약속이니깐 반드시 지켜서 그렇게 해야만 떳떳할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여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남매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벌써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구 교 성

해뜨는 교회 담임목사

전인건강학회 이사

2. 나의 결혼생활과 언어의 패턴

목회자는 모름지기 경건을 유지하고 언어를 기독교식 용어를 사용하면서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타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서 그것이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내에게 화를 낸다든지 큰소리를 치는 것은 경건이라는 라인을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에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존칭어를 사용하였지요! 그런데 언제 인가부터 약20년 전부터 어느 날 제에게 가정사의 대화 중에 바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바보가 뭐야! 하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화를 삭이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바보야!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도 바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상실되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간(肝)이 해독을 못하고 피부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머리에는 유전적 영향도 있겠지만 대머리가 지속되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 아내의 언어패턴과 남편인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아니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남편인 내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

인가 아니면 이성간의 스캔들이 있는가? 물질이나 명예적인 것을 남용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은 사람인가? 부족했어도 성도와 교우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나에게 왜 최하위의 단어를 선택해서 당신은 바보야! 이 바보! 라고 할까?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간혹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간증하는 신앙인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여(女)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부럽기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3. 피부과 의사의 피드백

아니, 목사님 적당히 화도 내시고 할 말을 하면서 사세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내가 타인을 지나치게 인식하고 내향적인 성향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만 삭히고 살아 온 것을 의사는 상담 중에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주사한대 맞고 약을 며칠 복용하면 가려웠던 피부가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해서 꾸준히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엉덩이 주사의 부작용으로 우측 골반 위에 지금도 부어 있는 것처럼 불룩합니다. 또 한 가지 힌트는 같은 노회 임원 중 한 분은 노회에나 교역자회에 설교할 기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마치 자랑처럼 설교 중에 양념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하! 목사들도 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화나고 성질 나면 자기 표현도 하고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과 피부과 의사의 권면도 생각이 아내에게 한바탕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4. 나는 왜! 내가 바보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하는 사역과 일에 대하여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와 법률상담과 대인관계에서 윗사람 존중하고 세워드리고 아랫사람들 잘 아우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은 못보고 돕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긍정적 사고와 노회에서 교역자회에서나 동기들의 모임과 기도회 그룹들과의 관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면 잘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교계에서나 동료들로부터 구교성목사는 추진력이 강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강한 피스메이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담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신앙, 사회, 법률, 인생 등 상담 중에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 패턴의 사이클이 상담, 치유, 돌봄, 섬김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저녁에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오가면서 말다툼 하면서 아내가 나의 벗겨진 이마를 손바닥으로 툭 치면서 오늘도 이 바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격분을 내서면 나 당신에게 물어 볼 말이 있다고 하니 뭐냐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 때다 싶어서 여보 왜! 좋은 말들 중에 상위의 언어와 대화법이 있을 텐데 당신을 십몇 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누가 있건 없건 간에 남편인 나에게 바보가 뭐요 당신 보기는 바보로 보여요? 아

니 교인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쓸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당신만 보면 이제는 울렁증이 생겨서 당신 두렵소. 이제는 더 늙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소 나도 자유함과 행복할 권리가 있소! 말 해 봐요 내가 당신보기에 진짜 바보로 보여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당신을 진짜 바보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요 이 바보야!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열(熱)나더군요.

5. 바보라고 하는 결정적 이유?

아내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심각한 말은 그 뜻은 바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예요. 나는 비로소 10년 전에 바보의 비밀의 코드를 해독하고 속으로는 웃기도 하고 행복해 하면서 아내로부터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 까요 그 후로는 좀 편하게 살고 할 말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내면의 숨겨진 것을 적당하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 진짜 바보! 라는 것을 확인

박재형교수님의 추천으로 전인건강학회 일원으로 섬기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 조무성 교수님의 논문과 웹사이트를 소개 받고 “바보들의 모임” 이라고 하는 샬롬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내의 예언적 조크(joke)가 실적 그룹의 공동체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속상하고 자존심 하였던 바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하니 긍정과 기쁨으로 자부심의 용어로 변개 된 것입니다. 이제는 웃게 하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바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과 파괴와 어그러진 피조물들 이제는 온전한 조화로운 회복의 상태로 총체적 치유의 선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눅9:1-2) 사역을 바보들의 모임에서 참 바보처럼 사역을 감당 할 것입니다. 여리고 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돌보고 치유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시의 정신으로 성경대로의 삶을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로 바라보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THE BOUNDARIES OF LOVE
 - THE SEVENTH COMMANDMENT -

Rata, Cristian G.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할렐루야교회 영어예배부 협동목사

I recently read a story about a group of about eleven women who were asked if they were faithful to their husbands. Only on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nother one of them was also faithful, but was too ashamed to raise her hand to acknowledge that.

This is the kind of culture in which we live, a culture in which people are ashamed of fidelity. Al Mohler, the president of Southern Seminary is correct when he says that "we are an adulterous generation." And this is confirmed by a spokesman of Generation X: *"We are the first generation in which adultery is now not an issue. We have so little expectation of monogamy or of faithfulness, adultery is just no big deal."* Gladly, that is not true of his entire generation, but it does seem increasingly true of the culture at large.

However, in this context of unfaithfulness, when society considers adultery the modern/sophisticated (even mature) way to live, the Bible is again countercultural by insisting that the mature is the one who lives in obedience to God. And God's word on this issue is very clear and direct: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In an "adulterous generation" we are called to faithfulness in marriage.

This is a commandment (the seventh) given to protect marriage, and the Bible makes it clear that adultery is a great sin. In fact, adultery is the greatest sexual sin because it violates the trust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breaks the

marriage covenant, a promise made before God. For this reason, adultery does more damage than other forms of sexual sin, such as having sex before marriage. Adultery begins a breakdown of order that threatens the entire society for how can we trust each other if we cannot trust each other in our most intimate commitments? If we cannot maintain trust and fidelity within the small and inherently meaningful universe of marriage, how can we trust each other in commerce, in politics, in business, in culture, in life?

Dr. Erwin Lutzer demonstrates the gravity of this sin by arguing that an adulterer usually has to break at least five of the ten commandments:

-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An adulterer say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t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lationship with God.**
- 2) You shall bear no false witness. Usually an adulterer lies to cover his sins.**
- 3) You shall not steal. In most cases adultery, as in the case of David's sin with Bathsheba, an adulterer steals someone else's wife.**
- 4) Thou shall not covet. Adultery begins with a coveting heart.**
- 5)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nother reason God forbids adultery is because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our sexuality and our spirituality. The un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s intended to exemplify the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There is something transcendent about our sexuality. In the same way that husbands and wives give themselves to one another—holding nothing back—God gives himself to us and wants us to give ourselves to him.

Because the union between husband and wife exemplifies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see Ephesians 5:31–32 and 1 Corinthians 6:15–17), for Christians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someone who is not a spouse is to violate the holiness of their union with Christ. We show our covenant loyalty to God by maintaining our sexual fidelity to our spouse (or our future spouse).

THE SEVENTH COMMANDMENT

As usually, Jesus goes even deeper when he addresses the issue of adultery. Thus, Jesus said,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at a woman with lustful intent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7-28) For the seventh commandment, this means that we are **forbidden to lust**. To lust is to look at a woman—or a man, for that matter—and to imagine the sexual possibilities.

However, on any given Sunday, there are people sitting in church who only the night before watched a pornographic video or had sex outside of marriage. This shows that the problem is not mainly our culture, even for all its temptations; the problem is our own sinful hearts.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ates this matter more clearly: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s the preservation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in heart, speech, and behavior” (A. 71). If we consistently apply these principles, then we break the seventh commandment by reading sexual literature, such as most romance novels, by fantasizing about relationships that include sexual intimacy, and by making suggestive comments or telling dirty jokes.

The fact is that the EYE is a window to sinful desire. One way to gain victory over sexual sin, therefore, is to turn away our lusty gaze. Godly women have always understood that this requires modesty in the way they dress. And godly men have always understood that preserving sexual purity means being careful about what we keep looking at.

Job’s remedy was this: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a girl*” (Job 31:1)

Being careful what we se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than it is today, when there are sexual images almost everywhere we look. Philip Ryken says: “Based on my experience, the Internet has become Satan’s number one tool in the 21st century and it seems to be a more silent infection into the body of believers because it typically only involves the user and their computer.”

The silent infection of pornography in the church is deadly. It *denigrates women*, damages *relationships*, and destroys a *man's spiritual ability* to lead. The Puritan Thomas Watson rightly said that pornographic pictures “secretly convey poison to the heart.”

Despite the denial of modern society, the sin of adultery has grave consequences *inside* (we are not just animals), and *outside* in our family relationships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In *A Natural History of Rape*, Randy Thornhill and Craig T. Palmer report that only 22 percent of rapes involve "gratuitous" violence beyond what is necessary to subdue the victim, yet any rape counselor knows that the real violence occurs on the *inside* and may lead to years of depression, nightmares, memory loss, and sexual dysfunction. Victims of abusive relatives and pedophilic priests testify that something far more than a body gets hurt when a trusted adult abuses a child sexually. Decades later, suffering persists.

In one sense adultery is one of the most selfish sins. However gratifying it may be to the adulterer, to those around him and to his family in particular the hurt is not only deep, but it may last forever. That is another reason why “God will judge the sexually immoral (Hebrews 13:4).”

By God's grace “Eros” can be redeemed. In a sermon on adultery, Martyn Lloyd-Jones said, “*Even adultery is **not the unforgivable sin**. It is a terrible sin, but God forbid that there should be anyone who feels that he or she has sinned himself or herself outside the love of God or outside His kingdom because of adultery. No: if you truly repent and realize the enormity of your sin and cast yourself upon the boundless love and mercy and grace of God, you can be forgiven and I assure you of pardon.*” Lloyd-Jones could have stopped there, except he added this comment: “But hear the words of our blessed Lord: ‘Go, and sin no more.’ ”

These were Jesus' words to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and they are also his words to us, for the Bible says: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THE SEVENTH COMMANDMENT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ne of you should know how to control his own body in holiness and honor, not in the passion of lust like the Gentiles who do not know God; that no one transgress and wrong his brother in this matter, because the Lord is an avenger in all these things, as we told you beforehand and solemnly warned you. For God has not called us for impurity, but in holiness. Therefore whoever disregards this, disregards not man but God, who gives his Holy Spirit to you.*—1 Thessalonians 4:3-8

John Knox was one of the great reformers. When he was in his fifties, under God's power, he took Scotland for God. But evidently in his forties he entered a flat period of his life. In one of his journals he wrote, "*I will keep the ground that God has given me. And perhaps in His grace He will ignite me again. But ignite me or not, I will by His grace and in His power hold the ground.*"

That is the commitment that we have to make at every stage of our life.

I will keep the ground that God has given me. Perhaps in His grace, He will ignite me again. But ignite me or not, by His grace, and in His power, I will hold the ground. AMEN!

Dr. Rata joins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having completed his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He also earned master's degrees from both the University of Toronto (Hebrew Language and Literature) an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Old Testament). His doctoral research was on the finite verb in the Book of Job. Of Romanian heritage, Dr. Rata has ministered in Romanian churches in Canada and in the USA. He is currently assisting Dr. Steve Chang in pastoring the English congregation at Hallelujah Community Church in Bundang. His interests include Wisdom Literature, Semitic languages, Biblical archaeology and theology, and Islamic studies. He is married with two children.

크리스찬 라타 (Dr. Rata)

크리스찬 라타 교수는 University of Toronto 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구약학 교수로 헛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 부임하였다. University of Toronto 와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각각 히브리어문학과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 연구 주제는 '욥기에 나타난 정(형)동사(finite verb)' 였다. 루마니아계인 라타 교수는,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루마니아인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현재 본당의 할렐루야교회 영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또한 그의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혜서, 셈어, 성서고고학, 이슬람 연구에 걸쳐있다. 부인과의 사이에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21세기 바보론

-살림일꾼 찾기-

여는 글 (1)



조 무 성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장

전인건강학회 이사장

암퇴치운동본부 공동대표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비전센터에서 점심 때 도시락을 먹으며 창 밖의 평화로운 경치를 보고 왜 우리 사회는 물론 심지어 교회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아, 바보가 없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바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었다. 2006년에 8월 24일 「바보 모임의 비전과 할 일」에 대해서 발제를 한 적이 있다. 바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야 세상을 바로 본다고 생각하여 바보를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1세기 바보는 21세기를 바로 보며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으로 성경적 의미를 부여했다(로마서 12:2; 로마서 12:1; 요한복음 13:13, 고전 1:21,27).

바보에 대한 아이디어가 싹튼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 1993년 암 수술 후 내가 투병할 때이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덕에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 박사라면 어떻게 박사 행세를 하며, 다 부자라면 어떻게 부자 행세를 하며 그리고 다 권력자라면 어떻게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박사는 못 배운 사람 덕에 박사 행세를 할 수 있고 부자는 못 가진 사람 덕에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으며 남을 다스리는 권력자는 그를 따르는 국민 덕에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박사는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기 말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며 권력자는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사의 지식으로 못 배운 사람을 섬기고 부자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도우며 통치자의 권력으로 국민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다. 지식과 돈과 권력이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뽐내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의 범주에 속한다.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의 자만심(pride)을 기본 죄악으로 보고 권력의 자만심, 지식의 자만심, 도덕의 자만심을 들고 있다. 바보는 이러한 자만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되기 위한 조건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16:24).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다운 제자를 키우기 위해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권좌에 오르면 서로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요한복음 13:13).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섬김의 극치를 이룩하셨다(마가복음 10:45).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고백한다(갈라디아서 2: 20, 5:24).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한다(로마서 12:2). 그리고 이것의 전제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한다(로마서 12:1).

오늘날 국가라는 집을 생각해볼 때 대들보는 정치요 경제는 그것을 밀받침하는 기둥이며 교육은 그 기둥을 밀받침 하는 주춧돌이다. 안방은 가정이고 응접실인 사랑방은 사회이다. 집의 창은 언론이며 지붕은 문화이다. 건강국가는 대들보, 기둥, 주춧돌, 안방, 사랑방, 창문,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 집의 중요부분들이 튼튼하려면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문화의 영역에 착하고 힘센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보이다. 각 삶의 영역에 이러한 바보가 주도하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샘솟고 고통이 줄어든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이 각 삶의 영역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 땅에 고통은 가중되고 평화는 사라진다.

우리의 신앙 선배 가운데 정말 바로 보며 산 사람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인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보로 산 사람이다. 성경 속의 인물이 그렇고 교회사의 인물이나 현대에서도 그렇다. 노아, 요셉, 다니엘, 예수님의 11제자, 바울 등이 그렇다. 칼빈, 루터, 웨슬리 등이 그렇다. 손양원, 마더 테레사, 장기려 등이 그렇다.

21세기를 사는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보인가?”. “나는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21세기를 바로 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 이어 하나님께 물어보며 또 간구한다. 국내외 하나님 앞에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주고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바보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바보들은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가장 효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인건강학회가 이러한 모범을 보이길 기도한다. 바보들은 전인건강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산물인 살롬커뮤니티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21세기 바보들이 교회를 통해 연결되고 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살롬일꾼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건강도시 특히 성경적 건강도시를 이룩하는데 전인건강학회가 의미 있게 쓰이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21세기 바보론: 살롬일꾼 찾기」라는 제목을 풀어갈 글을 열어본다.

김상복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 학사

웨이스신학대학교대학원 목회학 석사

웨이스신학대학교대학원 신학 석사

그레이스신학교대학원 신학 박사

워싱턴신학대학 명예박사

트리니티신학대학교대학원 문학 박사

경력

할렐루야 교회 원로목사 現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회장 現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회장 現

햇볕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탐임목사, 명예총장 現



김영준

학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생리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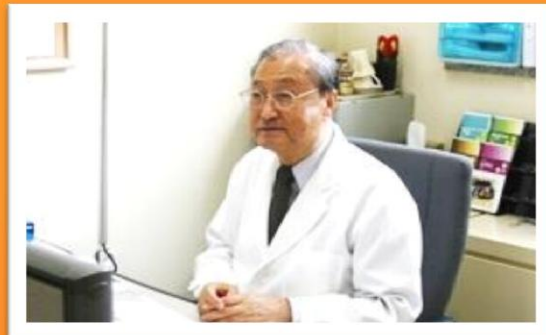
경력

암퇴치운동본부 상임고문 現

美 인디애나 의과대학 성인병 전문의

美 하버드 의과대학 성인병 전문의

美 국립원호성 성인병 특수클리닉 의료책임자



회원동정

김상복

3/14(월) ~ 3/28(월) 에디오피아 사역 : 전국기도대성회, 목회자 수련회,
신학교 특강 및 현지 교회 방문 등.

김수지

2월 20일 말라위 출국 - 선교사로 파송.

김영준

3월 23일 매주 수요일(4주간) 10:30 - 12:30 사랑의 교회 “전인건강관련” 강의.

이승중

2011년도 한국행정학회 차기회장(2012년 학회장)으로 당선.

조무성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나들목가족도서관 “말씀묵상과 암투병의 지혜” 강의.

학회공지

칼럼 모집

마음(영혼), 몸, 사회, 환경의 건강 또는 삶의 질에 관한 자유 주제.
원고 2매 내외. (소식지가 매달 발간되므로 칼럼요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춘계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관련 안내문이 3월말 발송 예정입니다.

회비 (국민은행 . 673601-04-001837. 전인건강학회(조무성))

학회계좌가 개설 되었습니다. 회비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전화 - 02) 544.7991. E-Mail - holisticheal@naver.com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분은 재가입하셔야 됩니다.

학회지 : 홈페이지에 올려짐 (회원 가입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사진(풍경,기타) : 홈페이지에 올려질 풍경사진, 기타 사진들을

학회 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장 - 박재형

사역소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K.C.H.M)는 1969년에 창립되어 국내 무의촌지역과 영세민, 현재는 IMF를 통해 실직된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국내, 외적으로 의료를 통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목적을 가진 70여개 회원단체와 협력사역 및 아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사역

부속 우리들 의원

도시 안의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사역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1차 진료사업과 복음전도 및 사회사업상담을 통한 전인치유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총 15,000여명

사회사업보조 : 영세민 및 외국인 노동자, 선교사 등 치료비보조

치유상담프로그램 : 가족상담 및 임상내원상담

장학사업 : 불우학생 학비 및 생활보조

부속 의료선교교육훈련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북, 대구, 경기 7개 지역에서 1년 2학기 훈련과정으로 의료선교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평신도 전문인 의료선교사들을 찾아내 양성한다. 언어훈련과 의료단기사역, 공동체훈련 등을 실시하며 동문회의 결성으로 선교사 지원 및 지역 의료선교사역등을 감당하고 있다.

의료선교대회 개최

매 2년 마다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헌신된 의료인을 발굴, 국내, 외로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부속 치유선교연구원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속 한국치유선교연구원은 총체적 치유사역의 관점에서 통합된 상담이론과 실기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유능한 치유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치유상담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봉사사역

문서 및 매체선교



의료와 선교, 계간지 발행

문서의료선교지인 의료와 선교를 계간지로 발행하여 이 땅의 참자는 기독교의료인들을 일으키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선교정보국

회원단체간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보다 빠른 선교정보를 교류하는데 힘쓴다.

의료선교전략연구소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선교 관심자를 찾기 위해 선교대회 헌신자를 관리한다.

의료지원국

해외 및 국내의 선교지와 각 회원단체의 의료봉사에 요구되는 약품지원 선교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역을 추진한다.

회원협력위원회 사역

회원단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한다.
(교회단체분과, 학생단체분과, 선교단체분과, NGO단체분과, 직능단체분과 등)

의료선교사대회

매 2년마다 의료선교대회와 함께 개최하여 한국인 의료선교사들의 선교전략교류와 영적 재충전하는 대회를 마련한다.



추진사업

홈페이지 : <http://www.hha.kr/>
E - MAIL : holisticheal@naver.com

전 인 건 강 학 회

**H O L I S T I C
H E A L T H
A S S O C I A T I O N**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사회, 환경의
성경적 건강을 추구합니다

소식지 내용의 저작권은 전인건강학회가 소유합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